

- 환영:** 오늘도 성전과 가정에서 주일예배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 예배:** 다음 주일(11월6일) 성찬예식(1회용 성찬기) 거행합니다. 11월 생신 맞으신 교우 축하시간 갖습니다.
- 추수감사절맞이 세이레 매일영상예배:** 11월1일~19일(매주 화요일~토요일) 감사주일 앞두고 올 해도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 2022년 교인총회 준비모임:** 교인총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선교회 총회 11월13일(주일) / 4/4분기 정기임원회 11월27일(주일) / 교인총회 12월4일(주일 낮12시 분당) 사회: 조선애 목사님 (Lake Merritt UMC)
- 목회협조위원회 결과:** 새 지휘자 청빙 결정 / 최희숙 권사님께서 11월 첫주일부터 찬양대 지휘자로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인트림으로 섬겨주신 정민선 장로님과 오사라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Cal-Nev연회 Korean Caucus 정기총회:** 다음 주일(6일) 오후5시 뉴크리에이션교회 / 교회대표 5명 참석
- 메디케어 세미나:** 다음 주일(6일) 친교 후 분당 / 강사: Karen Park / 메디케어 특별프로그램 소개 / 주관:남선교회
- 여선교회연합회:** 전국연합회 10월 학당(ZOOM) 오늘 오후 4시 “메타버스시대의 한인교회” / 바자회 물품픽업 11월5일(토)
- 북클럽 격주모임:** 오는 토(11/12일) 오전 7시30분-10시, 교회 도서실(2층), 문의: 이종혁/곽태길 권사님
- 교회 외부수리 추진:** 본당 2층 외벽공사/창문펜스공사/주차장 확장 및 펜스교체를 위한 사전준비 연내 실시
- 묵상집/성경통독문제:** 통독 3년차 중 첫 번째 해 / 통독과 묵상 그리고 문제풀이에 열심히 참여해 주세요.
- 주일학교:** 주일예배 및 찬양팀 연습(10am), 초/중/고 분반 제자훈련 13주(11am), 한국학교 가을학기 140명 등록
- 청년부:** 상반기 줌 성경공부 “그리스도인의 생활” (총12과) / 격주일 줌미팅 / 잠언 성경필사
- in-ear 모니터:** 설교 청취용 시스템 사용을 권장합니다.
- 주일친교:** 오늘: 김진세/신원 성도님, 다음 주일: 엄기준/영옥 권사님 / 주일친교로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 교우소식:** 연락하신 교우들, 출타하신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건강회복: 김국희 사모님 주영옥 권사님

2022년 표어와 목표

표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 목표: 한 영혼 전도하기

2022년 기도제목과 성구

“한사람이 한사람 전도하여 성전의 빈자리를 채우게 하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 1:14)

신앙생활의 핵심가치

-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Worship)
  -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육공동체 (Next Generation)
  -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공동체 (Evangelism)
  - 사랑의 나눔이 있는 건강한 소그룹공동체 (Fellowship)
  -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제자공동체 (Discipleship)
  - 지역사회를 위해 섬기는 나눔공동체 (Service)
- 1905년에 태동하고 1914년에 창립하여 한 세기를 뛰어넘는 역사를 간직한 오클랜드교회는 독립운동과 민족운동을 위해 헌신한 교회로서,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세상과 이웃을 품는 사랑을 간직한 자랑스러운 한인 이민교회입니다.

모임	시간	Oakland Sunday School	
주일예배	오전10시(대면/영상)	Children	주일 10am
		Youth	2층 예배실
주중영상예배	수요일, 토요일 영상예배	Bible Study	주일 11am
주일아침말씀방	-	Young Adults	격주일 줌미팅 3pm
주일중보기도모임	-		격주목 줌BS 7pm

[오클랜드 한국학교] www.theokschool.com / 가을학기 오픈 8/27/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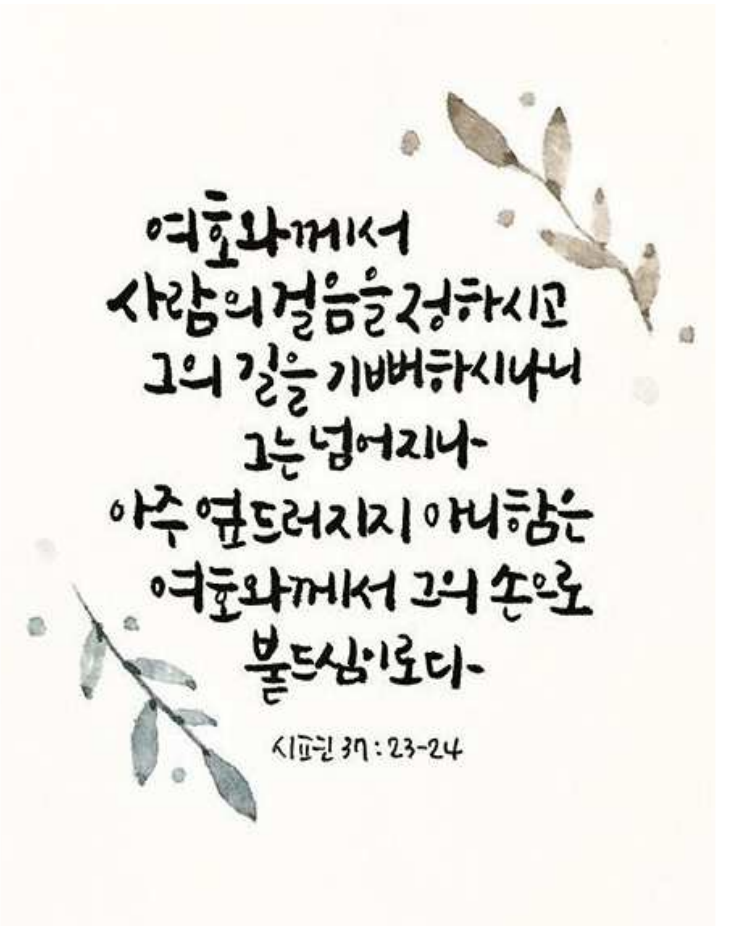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정현섭  
Hyunsup Jung  
hsjungusa@hotmail.com
- [부목사] 장세원(행정, 청년)
- [전도사] 민예인(EM, 교육)
- [지휘자] 오사라
- [반주자] 황경숙(오르간)  
한선욱(피아노)



# 오클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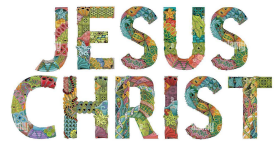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 Oakland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737 E 17 Street, Oakland, CA 94606  
(510)451-9076 www.newokumc.org

The Church full of Grace and Truth



# 주 일 예 배

2022년 10월 30일 주일

대면 및 라이브영상예배

인도: 정현섭 목사 / 오전 10시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경배와 찬양 Worship Praise / 장세원 목사

신 앙 고 백 Confession / 사도신경 / 다같이

찬 송 Hymn / 8장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회 중 기 도 Prayer / 장세원 목사

찬양대 특송 Choir Anthem / "빈들에 마른 풀 같이"

말 씬 봉 독 Bible Reading / 신명기 34장 4~12절

설 교 Sermon / 정현섭 목사

## "인간의 사라짐과 하나님의 드러남"

새가족 환영과 알림 Welcome & Announcement

♣ 봉헌 및 찬송 Offering & Hymn /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축 도 Benediction /

♣ 이 표는 일어어서 합니다. ♣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 11월 예배섬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일	주일회중기도	주중영상예배	11/12월 예배섬김
6	담임목사	추수감사절맞이 매일영상예배 11월1일~19일 매주 화~토요일	[안내/봉헌위원] 윤숙자 권사 황경숙 권사 정정수 권사
13	한건석 권사		
20	추수감사주일 황원규 권사 박신원 자매		
27	양경혜 권사		

### [주중 수요일, 토요일 영상예배]

정현섭 목사 / "기쁨의 언덕으로" 신명기 말씀 묵상

## Welcome!

우리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가족 환영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 함께 교우들과 더불어 애찬을 나누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안내를 따라 목양실을 방문해 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방 문 자	Harry & Jane Yoon	방문	윤경섭 권사님
	서영성 형제님		정지선 장로님
	이선주, 박미경, 이현정 성도님		조윤경 권사님

### 향기로운 예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 [10월23일 / 합계: \$4,198.00]

[십일조] 양경혜 윤진자 장유익/정규 현순정

[감사헌금] 김순찬 김우정 박혜숙 손옥순(은혜) 송의섭 윤진자(수술)  
장청자 정현섭(한국) 조종애(한국)

[월정/주정헌금] 김단진 남정우 무명 민예인/하영 박혜숙 윤행자  
이종혁/연진 전상숙 정기호 정신애 정지선 정현섭 최인택 한건석  
홍승일/애순

[속회선교헌금] 오클랜드B(무명 신마사 오금희 조재각)

지난 주일/주중예배 참석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행2:46)		
주일대면예배	69명	주중영상예배(수/토)	-

속 회	섬 김 이	모 임 보 고	모 임 안 내	선교후원
믿음	윤숙자/정현섭	10/21/금/신마사 성도택/6명		나눔의동산 파라과이1
사랑	오금희/정현섭			
감사	이문자/정현섭			나눔의동산
샬롬	김사현/김우정			예수사랑
와보라	박경숙/손수락	10/14/교회/10명	-	멕시코
온유	권정희/곽태길			파라과이2
기쁨	양경혜/이선이			러시아
주향한	현순정/양주섭			러시아
청장년	최규민/정현섭			기아대책
청년	김근환/장세원			-

## Good News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 마음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고대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Hannibal)은 눈이 하나밖에 없는 애꾸 였습니다. 하루는 그의 집으로 화가를 불러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게 합니다. 화가는 한쪽 눈이 감긴 모습을 정직하게 사실 그대로 그립니다. 그러나 완성된 그림을 본 한니발 장군은 대로(大怒)합니다. "왜 이렇게 병신 꼴로 그렸느냐!" 장군은 화가를 끌어내어 목을 치라고 명합니다. 그 화가는 그림 하나 그린 댓가로 죽고 맙니다.

장군은 다시 다른 화가를 불러 초상화를 그리게 합니다. 앞서 화가가 눈 하나 없는 모습을 곧이곧대로 그렸다가 화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온 화가는 한니발의 초상을 두 눈이 다성한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한니발 장군은 이번에도 대로합니다. "내 눈이 어째서 돌아냐? 하나밖에 없는 눈이 네 눈에는 둘로 보인단 말이나? 이건 내가 아니라 딴사람이 아니냐! 괘씸한지고." 이 화가도 역시 참수(斬首)를 당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불려와 초상화를 그린 화가는 생명을 부지합니다. 그는 한쪽 눈이 보이지 않도록 한니발의 옆모습을 그렸던 것입니다.

\*\*\*\*\*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다고 해서 꼭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가 문제입니다. 행복은 소유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 관심의 방향이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나의 세계관과 나의 생활 철학에 따라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내 생각의 방향에 따라서 성공한 것도 되고 실패한 것도 됩니다. 관심의 방향, 마음의 방향(向方)이 중요한 것입니다. 돈, 명예, 지식, 지위를 다 가졌다 해도 내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해 있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31일(월) 신명기 34장	11/1일(화) 여호수아 1장
매일 성경통독과 묵상	2일(수) 여호수아 2장	3일(목) 여호수아 3장
11월: 여호수아	4일(금) 여호수아 4장	5일(토) 여호수아 5장